

민주, 송갑석 최고위원 등 비명계 주요당직에 대거 발탁

지명직 최고위원 송갑석·정책위의장 김민석 수석대변인 권칠승·전략기획위원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새 정책위의장에 김민석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에 호남 몫 송갑석 의원을 임명하는 등 비이재명(비명)계를 대거 발탁한 주요 당직 개편을 단행했다. 내년 총선을 이끌 사무총장은 개편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통합과 탕평, 안정의 의미를 담아 당직을 개편했다”며 당직 개편 내용을 발표했다.

임선숙 전 최고위원이 물러나며 공석이 된 새 지명직 최고위원으로는 호남 출신 비명계 송갑석 의원이 임명됐다. 지역구가 광주 서구 갑인 송 최고위원은 지난해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 선출직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후 ‘민주당의 길’ 등에서 활동하며 당에 대한 쓴소리를 이어왔다.

정책위의장은 김성환 의원에서 김민석 의원으로 교체됐다. 15·16대에 이어 21대 국회에 입성한 3선 의원인 김민석 신임 정책위의

장은 지난 대선 당시 정세균 후보 캠프에 몸담았으나 계파색은 없다는 평가다.

다만 내년 총선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돼 교체 여부가 주목받았던 사무총장직은 조정식 의원이 계속해 맡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 그룹인 ‘7인회’ 소속 의원들은 모두 당직에서 물러났다.

‘7인회’ 소속 김병욱 의원은 정책위 수석부 의장에서 물러나고 김성주 의원이 자리를 이어 받는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 정세균 후보를 도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맡기도 했다.

7인회 소속인 김남국 의원이 맡았던 디지털전략사무부총장직도 박상혁 의원으로 교체됐다. 박상혁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지냈다.

7인회 소속 문진석 의원이 맡았던 전략기획위원장엔 한병도 의원이 선임됐다. 한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부수석비서관을 지낸 친문계로 꼽힌다.



대변인단도 대거 교체됐다. 수석대변인직은 권칠승 의원이 안호영 의원의 뒤를 이어 수행하게 됐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친문계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등의 논란을 낳은 김의겸 의원을 비롯한 임오경 의원과 황명선 전 대변인은 대변인직에서 물러났다.

대변인단의 빈자리는 강선우 의원이 채우게 됐다. 강 의원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때에 이어 대변인을 다시 맡게 됐다. 박성준 의원과 한민수 대변인은 유임됐다.

박성준 대변인은 조 사무총장이 유임된 데 대해 “민주당의 통합도 중요하고 안정도 중요하다”며 “내년 총선을 위해 당의 살림을 꾸

리면서 안정에 방점이 있는 자리가 사무총장인데 조 사무총장은 5선으로서 그간 일을 잘 해왔고 사무총장으로서 안정을 추구하며 당내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라는 표현이 많았다. 중량감 있고 안정을 위해 유임했다”고 설명했다.

최이슬 기자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 여수미래혁신지구 간담회 개최

미래혁신지구 방문, 기관별 주요사업 청취 및 관계자 격려



여수미래혁신지구(여수국가산업단지 삼동지구)가 산단 연계 R&D사업 단지화 및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을 목표로 운영 중인 가운데, 여수시의회 의원들이 입주 기관의 주요사업 추진상황 파악에 나섰다.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8명, 시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27명이 주삼동에 위치한 여수미래혁신지구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기획행정위원들은 먼저 시 정부 관계자로부터 여수미래혁신지구 사업개요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시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지구는 2015년에 조성 완료돼 현재 미래 신성장산업 연구

개발 및 지원기관 집적화, 산단 안전인프라 구축 등과 관련된 14개 사업이 진행 중이며 전체 총 3,143억 원이 투자됐다.

이어 현재 입주해있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여수산학융합원, 공정혁신시물레이션센터, 한국화학연구원, 전남테크노파크,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6개 기관 관계자로부터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위원들은 설명과 보고를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여수산단과 여수미래혁신지구, 전남대가 시너지효과를 내 지역 산업을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자를 격려했다.

정현주 위원장은 “친환경사업 등 신산업에 대한 관심과 동시에 기존 산단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스마트 그린 산단 조성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여수미래혁신지구에서 진행 중인 사업들이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여수=김현근기자

민주, 北도발 규탄…“尹정부, 외교 노력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북한 단거리 도발을 규탄하고 우리 정부를 향해 외교적 노력 경주를 촉구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북한 단거리 단도미사일 발사를 지적하고 “군사 도발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한반도 긴장을 고조하는 건 한미 연합군이 아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무시하고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 당국”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한반도 긴장을 높여 얻을 수 있는 건 오직 고립 뿐임을 분명히 경고한

北엔 “긴장 높여서 얻을 건 고립”이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우리 정부를 향해선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며 “북한에 대한 외교적 노력은 아예 그만둔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도발을 대일 굴종외교 명분으로 삼을 생각이라면 명백한 오판”이라며 “지금 정부가 외교력을 보일 지점은 한반도 긴장 완화”라고 했다.

나아가 “군 당국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47분 계부터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이 포착됐다.

이번 북한 미사일 도발은 지난 22일 전략수령미사일 후 5일 만, 탄도미사일 기준으론 지난 19일 이후 8일 만에 이뤄졌다.

김재환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